

박병규 광산구청장 발간 책 제목 '논란'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민주당 성찰·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제안 "만용이나 진솔함이나" 7일 출판기념회 이후 구청장 행보 이목 집중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민선 8기 2년을 보내면서 느꼈던 감정을 엮어 발간할 저서의 제목을 놓고 지역 정가에 역적이 분분하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광산구 상무대로 한 카페에서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기념 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책 제목은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이다.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지 3년째에 불과한 정치 초년생의 참신한 생각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중앙정치의 폐해를 진솔하게 꼬집으며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성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 퇴보와 민생 실종 및 지지율 20%대

의 윤석열 정부 2년의 민낯을 보면서 다음 정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담았다고 한다.

특히 제목으로 내세운 '이재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정권을 이끌 유력한 예비 권력자로서의 이재명과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이재명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책의 제목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선 박 구청장의 의중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텃밭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구청장이 당 대표를 거명하는 것은 만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현재 민주당 행태를 순수하게 걱정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진솔함이 담겼다는 평가도 있다.



박 구청장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민주세력에 부족한 것이 뭘가에 천착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설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박 구청장은 "아직 결정한 바 없으나 주변에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 제목의 의미가 남달라 아직 배포되지도 않은 책의 제목만을 놓고 주민들이 설왕설래하는 등 박 구청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남구 제석산 입구 썸지공원 조감도. (광주시 남구 제공)

남구, '기부채납 사유지'에 썸지공원 만든다

봉선동 제석산 자락 450여㎡ 지역주민·등산객에 휴식공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제석산 자락에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썸지공원이 조성된다.

남구는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1단지 아파트 뒤편 부지(450여㎡)에 오는 10월까지 지역주민과 등산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썸지공원을 만든다고 2일 밝혔다.

공원 조성은 제석산 입구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사유지를 구청에 기부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부지가 보전녹지여서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관리가 잘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해 상반기에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남구에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했다.

남구는 기부자의 의중을 존중해 이달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건강과 휴식이 있는 썸지공원 조성에 들어간다.

봉선동의 옛 지명이 불로(不老) 마을이었던 점을 반영해 건강과 안녕,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불로문 조형물을 설치하고, 걷기 운동용 산책로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별가리개 쉼터와 선베드, 그늘막 벤치를 설치하고, 모과나무를 포함한 과실수를 심어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에 마을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관리에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부지를 기부해 준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산구, 첨단 주상복합 쓰레기 보관시설 '지하 4층 수거' 해결 약속

사업자·입주민 의견수렴 대안 마련...3.5톤 청소차량 확보

광주시 광산구가 첨단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쓰레기수거를 위해 3.5t 청소차량을 확보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3.5t 청소차량을 확보해 첨단 주상복합 건물의 생활폐기물 수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이 접수된 첨단 쌍암동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들은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상복합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 4층에 설치했지만, 지난 4월 주택 사용검사 과정에서 청소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폐기물을 배출할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하 4층의 시설은 분리배출을 위해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지상에 폐기물을 배출할 것"을 요청했다.

광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5t)은 지하 4층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지만 예비 입주자 측에서는 지상 별도 공간 확보 어려움, 건물 미관 및 위생 저해 등을 이유로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수거까지 이뤄지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산구는 10여 차례 이상 주민간담회, 건설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을 거쳐 수거가 가능한 청소차량을 확보해 '지하 4층 수거'가 가능해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국강현 광산구의원 "선운초 학생 4km 떨어진 중학교 가야 할 상황"

선운지구 학령인구 최소 250여명
선운중 수용인원 150~160명
교실 증축·통학버스 등 대책 시급



진아리채아파트도 입주자가 정해 있다"면서 "이에 반해 선운중의 수용 여력은 총 6학년 150~160명 수준이라 선운초 졸업생 100여 명은 4km 떨어진 진송정중·송광중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선운중의 2학년 증설만을 계획하고 있다"며 "6학년 증설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그동안 학생들의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은 교육감을 만나 조립식 교실의 증축을 서두르고, 선운중 증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선운지구에서 송정중·송광중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등학교 증설이지만 당장은 광산구와 광주시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동구 산수동·내남동 공원에 '맨발 걷는 길' 조성

광주시 동구가 산수 제1공원과 내남2 소공원 내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는 길'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초부터 '도시공원 내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산수굴다리 옛터(산수동 728번지)에 위치한 산수 제1공원에 폭 1.5m에 총길이 110m의 맨발 걷는 길을 조성했다.

또 내남동 진아리채 1차(내남동 901번지·사진)에 위치한 내남2 소공원에도 폭 1.5m, 총길이 130m의 맨발 걷는 길을 세죽장과 신발 보관함을 함께 설치했다.

동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맨발 걷는 길을 선정·조성 중이다.

동적골 수국동산(운림동 801번지), 두암 제2근린공원(산수동 867), 푸른길공원 시작점(계림동 730) 3개소에도 추가로 맨발 걷는 길 조성



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공원 내 휴식도 즐기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맨발걷는 길을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